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확정

■개최 의미와 전망

201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된 순천만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촬영에 몰두하고 있다.

‘생태도시 순천’으로 재탄생

순천시는 16일 ‘201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지구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가 순천시(순천만)로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첫 정원박람회의 개최 의의와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높다.

관람객 500만명… 경제효과 1조3천억

부지 매입·정원수 확보 등 준비 순조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도시 전역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및 도시녹지공간 구축의 기회, 전 지구적 생각과 지역적 실천을 담은 미래형 박람회를 내걸었다.

◇개최 의의=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최 의의를 국가적 의의와 지역적 의의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국가적 의의로는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불리는 순천만을 세계 유일의 생태정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 생태환경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순천이 가진 세계적 생태자원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정원 등 생태도시의 이미지 제공을 통한 국내외 생태관광 수요 창출과 생태자원의 가치 증진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지역적 의의는 자연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온, 상습 침수지역인 순천만이 인간의 노력으로 도전을 극복해 생태적 공간으로 거듭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선도적 도시재생 모델의 탄생을 선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근 여수에서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가 열리고 최근 순천과 여수, 광양을 아우르는 광양만권 통합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번 정원박람회가 광양만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 효과=순천만 정원박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사업비 투자를 통해 파급되는 직접적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1조3천억원, 부가가치 6천790억원, 일자리 창출 1만1천명, 관람객 468만명 등으로 집계됐고, 간접적 효과로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정원 조성과 갯벌보전을 꼽을 수 있다.

1㎢ 규모의 녹지는 여름철 녹지주변 기온을 섭씨 1~2℃ 정도 떨어뜨리고 1㎢의 면적의 수림은 연평균 6.3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순천만박람회는 152만7천㎡의 박람회장 조성을 통해 971t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갯벌은 1㎢당 평균가치(수산물생산, 보존가치, 서식지 제공, 정화기능, 재해예방, 여가가치 등)가 연간 39억원으로 순천만 갯벌 28㎢는 연 1천92억원에 해당하는 가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 어떻게=순천시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박람회 부지 중 3분의 1가량을 이미 매입했고, 나머지 부지는 연차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또 박람회에 사용될 3만3천그루의 나무 가운데 이미 2만1천그루를 확보하고 이들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가식장 건립에 나서는 한편 박람회에 필요한 800만본의 꽃은 지역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마스터플랜도 이미 지난달 공모에 들어갔다. 또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지난 8월에는 조경학회와 한국원예생산자협회 등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박람회를 경험한 유럽 도시를 벤치마킹하려고 최근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조례 마련 등 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관련예산 중 국비와 도비 지원에 대해 당국의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전체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성공 박람회’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아 박람회를 실제 개최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담양군 축제취소 예산으로 독감백신 구입

신종플루로 노인의 날 행사 취소

내달 7일부터 65세이상 노인 접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로 생긴 예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에 씁니다.”

담양군이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행사 예산을 독감 백신 확보에 쓰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16일 “신종플루로 취소된 노인의 날 행사 예산 중 일부를 독감 백신 구입비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달 중 1억원을 들여 각 읍·면에서 열기로 했던 경로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이 행사 예산 가운데 5천만원으로 독감 백신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군은 독감백신 1회분 공급가격이 지난해 5천원에서 7천600원으로 대폭 인상된데 따른 고민을 해결했다.

군은 기존 예산 3천500여만원에 이 돈을 보태 1만1천여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다음달 7일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접종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취소된 행사 예산을 노인 건강을 위해 쓰게 돼 경로잔치를 취소한 데 따른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12일 기업체에서 취업실습 교육을 받던 담양 모 고교 3학년생 4명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가을 전령 ‘코스모스’ 살랑~ 살랑~ 16일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앵두나무 수변공원에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수변공원에 앵두나무 60그루를 심고 1천650㎡규모의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했다. 〈함평군 제공〉

강진군 전입자에 최고 3천만원 정착금

인구늘리기시책 조례 제정… 장학금·양육비 지원 등 내달 시행

강진군이 군에 전입(轉入)하는 모든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강진군은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인·군·경·귀농자 등 모든 전입자에게 각종 전입 장려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가 전기료 인하나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사례는 있으나 조례를 제정, 전면적인 지원에 나선 곳은 처음이다.

일반 전입자는 지역건강 보험료, 교통상해보험료,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등이 지원되며 주민세, 적십자비 등이 면제된다.

관내 고교생과 대학생에게는 10만원의 학비 지원금이, 군 장병에게도 정기 휴가비(5만원)가 지급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은 정착지원금(600만원)과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귀농인은 빈집보수와 도배비용(500만원)지원 이외에 최고 3천만원의 정착금을 준다. 신생아 양육비로 셋째 아이는 최고 720만원이 지원된다.

군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는 것은 심각한 이농과 고령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군은 내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0%)’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으로 4만800여명으로 4만명을 턱걸이하고 있다.

강진군 송기훈 조직관리팀장은 “인구늘리기 지원내용 안내서를 제작해 각 기관·학교 등에 배부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함평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

품질향상·경쟁력 강화 도움

‘함평한우’가 전남지역에서 축산물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함평군은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석형 함평군수와 임희구 함평축협 조합장이 이용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으로부터 함평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함평한우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제 57호로 한우로는 전국에서 3번째이며, 전남지역 축산물로는 처음이다.

군은 지난 2007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축산농가 설명회와 교육을 했으며 지난해 8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 현지 조사와 3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함평한우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향상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해 보호하는 제도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완도경찰, 학교폭력·절도 등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활동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식)가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재식 서장은 16일 완도고 대강당에서 교사와 학생 42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교실을 열었다.〈사진〉

이날 강연에서 김 서장은 학교폭력과 절도 등 청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예방법을 강조했다.

김재식 서장은 “청소년기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상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본분을 살려 열심히 공부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돼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직 대폭확대
소방직전문학원
국내유일 시험장과 동일 소방체력측정기 도입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권 무료
6개월 합격하면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52-0252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학원선택은 실적입니다.
▶ 2008년 국가직 388명 합격
▶ 2008년 서울시 지방직 309명 합격
▶ 2008년 전남지방직 69명 합격
▶ 2008년 광주지방직 113명 합격
▶ 2008년 경기지방직 127명 합격
▶ 2009년 합격자 현재집계중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반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0월 5일
종합/단과반
(호남유일 학수반 첫진도!)
최다합격의 절대강자
광주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야간반
= 호남유일 야간반 개설 =
첫개강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22:5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한빛고시학원